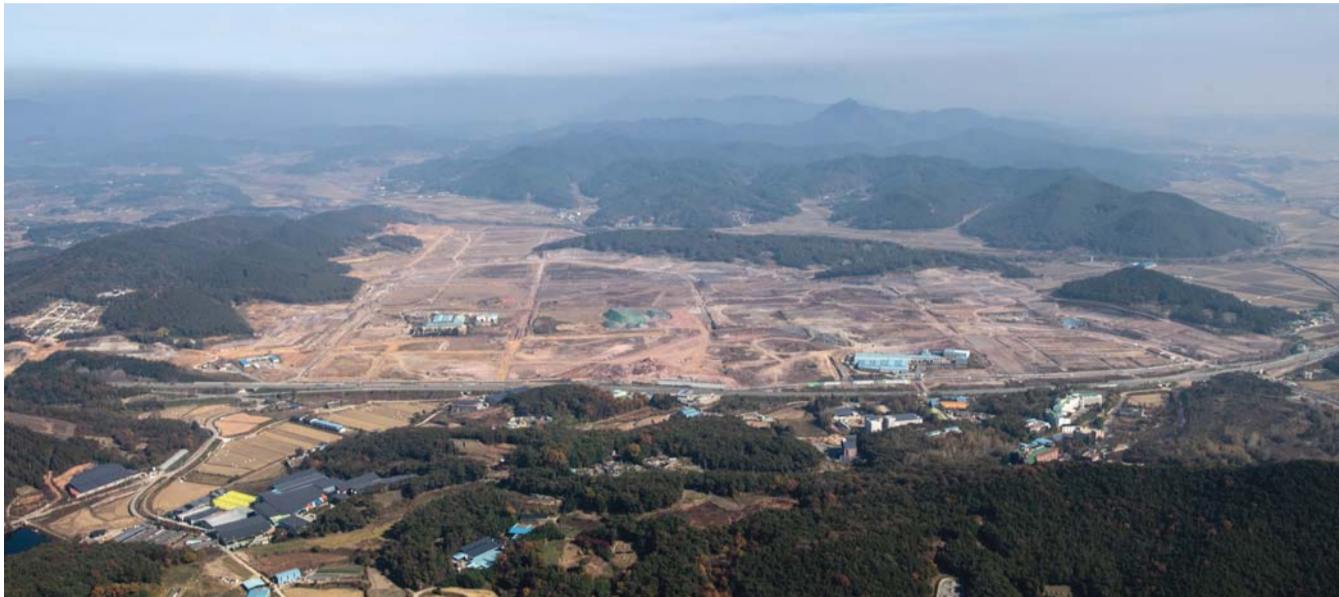


광주시·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

시, 오늘 노사민정협의회
내일 투자협약 조인식 개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4일 사실상 타결되면서 광주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노동시장의 새로운 모델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완성차 생산공장이 들어설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전경.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협상이 타결됐다. 현재까지는 잠정 합의로, 5일 광주노사민정협의회 공동결의와 6일 투자협약체결식이 남아있지만, 합작법인의 1대 주주와 2대 주주인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를 합의한만큼 향후 난관은 없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광주형 일자리'의 실현은 고임금의 대기업 노동자, 저임금의 하청업체·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양극단으로 치닫던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큰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계기를 만들고, 저임금을 찾아 중·고급 인력, 동남아 등지로 향했던 대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명분도 줄 수 있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광주시는 "5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협의회 위원장인 이용섭 광주시장의 주재로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는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장, 백석광주경찰청 대표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이 참석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그동안의 광주시와 현대차 간 완성차 공장 투자 협상 경과를 보고받고, 선진 노사관계에 관한 광주시 최종 협상(안)에 대한 공동 결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협상(안)의 주요 내용은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방안, 선진 임금체계 도입, 적정 노동시간 구현과 인력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4일 현대자동차와 잠정 합의를 마치고 5일 최종 협상(안)의 노사민정 공동결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와 최종 협상에 나서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고 6일 투자협약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투자 조인식에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정부 주요 인사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투자협상단은 노동계로부터 포

괄적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것을 토대로 현대차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해 속도를 낸 끝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협약서에는 광주시가 법인 자본금 7000억원 중 자기자본금(2800억원)의 21%(590억원)을 부담해 신설하는 독립법인에 현대자동차가 19%(530억원)를 투자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노동계 안팎에서 제기한 적정임금, 적정 근로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마친 후 이목이 집중됐던 초임 연봉, 근로시간 등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

해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택·교육·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임금을 높여주는 방안이다. 광주시가 조성 중인 빛그린국가산업단지내 완성차 생산공장(62만8000㎡)을 짓고 이 공장을 경영할 신설 독립법인에 현대자동차의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연간 10만대 규모의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공장을 지어 직접 고용 1000여 명 등 직간접 고용 1만2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반대해온 현대자동차 노조는 오는 6일 파업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5일 오후 확대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 문단의 주인공 당신입니다

2019 광주일보 신춘문예
12월 17일(월)까지 접수

광주일보사가 한국 문단의 새 주역이 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 작가 발굴을 위해 '광주일보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 시작된 이후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돼 왔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 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치열한 문학 정신이 살아 있는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300만 원)
 - 시 : 3-5편(당선작 1편, 상금 100만 원)
 -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100만 원)
- 접수 마감 : 2018년 12월 17일(17일 도착분까지 유예)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61482, 광주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편집국 문화부 (SC제일은행빌딩 9층) 문의 062-220-0624
- 기타 유의 사항
 -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원고 접수 시 맨 뒷장에 전화번호·주소·e메일주소를 첨부해 주십시오.
 - 응모 작품은 발표된 적이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기성 작가 표절일 경우 당선취소됩니다.
 - 결부등에 공모 부문을 꼭 명기해 주십시오.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선작은 2019년 1월 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합니다.

광주일보

밤 사이 기온 '뚝' 아침 최저 영하 3도 갑자기 찾아 온 겨울... 광주 모레 첫 눈

5일 광주-전남지역은 기온이 큰폭으로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추울 것으로 예보됐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5일 광주-전남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6도, 낮 최고 기온은 7-12도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이는 평년(최저 영하 2-3도, 최고 8-11도)보다 낮은 것으로, 광주지역은 4일 최저 기온이 12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10도 이상 떨어질 수 있다.

6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해안 일부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오겠고 7일부터 8일 오전까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눈이 오는 등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겨울 추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이 끼고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더 춥게 느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5일 대기확산이 원활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윤장현, 사기범과 수차례 만났다
'노무현 혼외자' 말 속이 취업 시켜줘 ▶6면
해커, 세금 때문에 떠난다
한국·도미니카공화국서 이중과세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역시나 '불수능' ... 국어가 당락 좌우

장성고 만점자 나왔다

지난달 15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결과,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이 수험생 반응과 마찬가지로 지난해보다 훨씬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난도 수능 탓에 공교육 파행과 사교육 의존도를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나오자 출제당국이 적정 난이도 유지에 힘쓰겠다고 약속하며 사과했다.

<관련기사 7면>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영역 별 표준

점수 최고점은 국어 150점, 수학 가형 133점, 수학 나형 139점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최고점인 134점, 130점, 135점과 비교해 모두 상승한 것으로 국어 점수의 상승폭이 가장 크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150점대로 나타난 것은 현 수능 체제가 도입된 2005학년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올 수능 국어가 역대급 고난도였다 것을 의미한다. 표준점수는 자신의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점수다. 시험이 어렵게 출제돼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가 높고, 문제가 쉬워 평균이 높게 형성되면 표준점수는 낮아진다. 올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이 일제히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난해와 비교해 시험이 어려웠다는 의미다.

절대평가 체제인 영어도 1등급 비율이 5.30%(2만7942명)로 지난해 수능의 10.0%에 비해 절반에 그쳤다.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수능 난이도 조절과 관련 "올 수능 난이도로 수험생, 학부모, 교사들께 혼란과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며 "향후 교육적으로 타당성이 높은 문항을 출제하고, 국어 31번과 같은 초고난도 문항의 출제를 지양하

도록 하겠다. 내년 수능에서는 수험생 대에 어긋나지 않는 적정 난이도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가장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는 올 수능에서도 만점자는 나왔다. 재학생 4명, 재수생 5명 등 모두 9명인데, 이는 지난 2018학년도 수능 만점자 15명보다는 적은 것이다.

광주-전남에서 재학생 수능 만점자를 배출한 학교는 일반고인 장성고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고측은 올 수능에서 문과생 허모 군이 만점을 받았다고 이날 밝히면서 4년 전인 지난 2015학년도에 이어 2번째 만점자 배출이라고 소개했다.

교육당국은 5일 수험생들에게 성적표를 배부한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믿을수 있는
우체국 간편 결제 서비스

우체국 페이로

결제도 송금도
간편하게 하세요!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남지방우정청
KOREA POST

소중한 사람에게는
사랑이 가득 담긴

우체국 택배

1588-1300
택배상담문인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3:00

우체국 준등기서비스

일반우편물을 수취인 주소지의 수취함 등에
배달한 경우, 발송인에게 배달결과를
SMS등으로 제공하는 우편서비스입니다.

전남지방우정청
KOREA POST

우체국 예금

우체국예금의 착한 혜택

송금출금 수수료 면제

우체국예금 고객이면 누구나
수수료 없이 타행송금, 출금이 가능합니다.

1. 장구 타행송금
수수료 면제! (최대 3,000원)
2. CD/ATM 타행이체 · 시간외출금
수수료 면제! (최대 1,000원)
3. 폰 · 인터넷 · 모바일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건당 400원)
4.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수수료 면제! (건당 300원)

* 우체국고객센터 타은행CD/ATM 이용 또는 타은행고객센터 우체국CD/ATM 이용시는 제외

전남지방우정청
KOREA POST

EMS

스마트 접수 서비스

EMS 스마트 접수 서비스를 이용하고,
요금 5% 할인받으세요.

사용방법

1. 사전 접수
인터넷우체국이나 스마트폰 앱에서 EMS를 접수합니다.
2. 우체국 방문
보내시 물품을 가지고 우체국 방문
3. 핸드폰번호 확인
창구에서 접수자의 핸드폰번호나 우체국측에서 발송인 정보(신용카드정보 입력한 경우 자동검색)
4. 접수 완료
5. 발송

특별 이벤트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EMS 스마트 접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에게 국제특급 우편(EMS) 요금을 5% 감액하여 드립니다.

대상 EMS 스마트 접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

전남지방우정청
KOREA POST